

韓國言論의 當面課題(經營과 編輯)

때 : 1971. 11. 12~14

곳 : 儒成 萬年莊호텔

主題論文 : 張 基 鳳(新亞日報社長)

本人은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좀더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점은 바로 경영과 편집사이의 자리를 서로 바꾸어 앉아서 그런 입장에서 대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이런 論理를 세우려면 먼저 우리는 한신문사는 資金을 움직이는 경리체와 지면을 꾸며주는 편집체와 그것을 製品化하는 공무체 그리고 그것을 기능적으로 팔아주는 판매체 등이 사실상 그전체가 경영이라는 것을 前提해야 옳을 것 입니다.

여기 이런 실패하는 경영기구상에 그 어느 한쪽 바퀴라도 빠지면 그런 운영체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신문의 경영이란 경영만이 있고 그 주요기구가 탈락될 수 없는 것이 진실이므로 오늘의 題目인 「경영과 편집」이란 주제는 썩 이치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經營이란 네바퀴 위에선 전부요, 경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신문의 제호 밑에는 발행인 · 편집인 · 인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社長이 있고 표시는 안되었지만 판매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職分上 法的인 責任分類는 한 新聞社를 有機的으로 運營하기 위한 方便이며 그것이 效果的인 것이어서 그렇게들 나누어서 責任을 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分野는 모든 經營의 한 部分이며 그 責任者는 大小간에 모두 積極的으로 經營에 參與하고 있

으며 政策을 논의하고 新聞의 方向과 그 實踐을 옮겨주고 있습니다. 그런 意味에서 나는 여러분 編輯人이야말로 經營者의 한 사람이며 政策의 企劃者라고 믿습니다. 어느 新聞社나 制度的으로 이런 모든 製作上의 經營幹部의 會議가 朝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한 新聞社의 運營上에 必要한 經營者로서 意見과 討論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意見들이 그대로 適用도 되고 거의 採擇되고 있다는 事實도 알것입니다.

社長이나 發行人이 직접 편집국에 내려와서 記事의 選擇이나 題目을 뽑고 있는 新聞社는 없습니다. 있다면 그런 新聞社의 運營은 엉망일 것입니다. 아니면 매우 閑暇할 정도로 일을 아니한 富裕한 新聞社일 것입니다. 이런 일이 흔하지 않는限 여러분의 經營上의 責任은 첫째로 編輯人은 重大한 責任의 領域을 메우고 있습니다. 요얼마전 編輯人協會를 보니 有數한 編輯人들이 편집권의 獨立問題를 들고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그중 한 부분의 論旨를 읽어 보았는데 앞서 이야기한 原則에서 이런 論旨들을 대하면 매우 釋然치 않은 點이 있습니다.

編輯을 하는 사람이 그 自身の 裁量으로 取舍選擇이나 全文掲載든 要旨掲載든 혹은 一部削除든 段數의 適宜性을 判定해서 편집하고 있는 것은 事實입니다. 그런 權限이 付與되지 않은 新聞社가 어디 있습니까. 經理나 印刷나 販賣에서는 大小간의 擴張紙의 發行이나 支出이나 收入등에 모두 所定樣式의 決濟過程이 있지만 編輯은 그런 過程이 없습니다.

그런 過程이 있다면 여러분의 部下와 여러분이 記事의 價値判斷을 上下간에 말로 남도 모르게 討論할 정도일 것입니다. 編輯權의 獨立이 論議된다면 이 獨立이 威脅될리도 없다는 이야기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提起된 것으로 압니다. 編輯權의 獨立이 實在하는데 없다고 믿는 理由는 아마도 여러분이 實務에 종사하면서 매일 그런 獨立權을 行使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요사이 같은 世界的인 亂世政局에는 外部의 壓力에 依해서나 혹은 부탁에 依해서 國家의 利益과 關聯된 記事중에서는 흔히 여러분의 판단기준에 혼란이 올 수도 있고 人情上 어찌 할 수 없는 莫不得已한 찰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問題는 編輯의 獨立權과는 無關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裁量에 屬하는 것이요 여러분의 「意志의

自由」에 의하여 處理될 성질의 문제입니다. 編輯의 獨立은 여러분 以外의 사람이 여러분의 자리에 앉아서 不當한 權利를 여러분을 代身해서 行使하지 않는 한 그것은 編輯의 獨立을 侵害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點에 있어서 編輯人의 獨立性을 지키고 또한 侵害를 막는 사람은 여러분 自身입니다. 이런 룰(定則)이 서있는 新聞社는 서울에도 있습니다. 이런 定則에 매우 약한 新聞社도 서울에 있습니다. 같은 情勢아래 強弱이 있다는 것은 自然한 것입니다. 약한 곳은 自衛努力이 더 必要합니다. 自衛에 대한 內部的인 努力없이 協會報에서나 輿論을 터뜨려도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전 解放後만해도 編輯人은 志士같이 간간하고 硬直한 분들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사이는 分化된 職分들이 많아진 時代가 되어 多分히 現代의인 經營用語로서 編輯者는 一種의 技能職으로 보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點은 좋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精神分野를 많이 점유하는 新聞이기에 編輯者직도 時代的인 柔軟性위에 아직도 우리는 正義에 剛直한 編輯者가 많이 必要합니다. 여러분은 요사이 젊은 編輯중사원중에 時間만 되면 中途에 나가버리는 制度아래서 다음 交代가 나머지를 꾸며가는 新聞의 變化를 목격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여러분이 編輯이나 記者修習時代에는 도저히 생각지도 못하던 職人氣質이 요사이 얼마나 바랄수가 있는것 인지는 실로 의문입니다. 요사이 젊은이에게 참을성이라든지 利害打算의 날쎈 감각을 우리는 일단 理解하면서 일을 다루어 나갑니다. 時代가 變한다는 것은 思考에도 變化가 먼저 오는 것 입니다. 本人은 바로 이런 世態속에서는 新聞이 돈을 많이 벌어서 모든 製作者들의 욕구를 가급적 충족시켜주면서 向上을 모색하는 것이 經營分野의 人士들이 취할 態度로 봅니다.

이제 本人은 여러분에게 길게 編輯人들의 立場에 서서 本人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經營體의 종합자인 發行人에 대한 생각들을 듣고 싶을 것입니다. 新聞은 누가 만들었든 發行人은 그 責任이 밖으로 있습니다. 西洋에서는 發行人은 흔히 經理계통을 장악하고 있는 販賣廣告出身의 人士가 맡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發行者는 결코 會社를 代表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發行人은 여러 株主들이 任命했을망정 되려 主筆이나 編輯長이 對外的으로 會社를 代表하는 곳도

많습니다. 타임 라이프社나 허스트系新聞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形便에서는 發行人이 社長을 겸하고 있으니 對外的으로 會社를 代表하는 經營者는 發行人입니다.

韓國의 新聞은 국민계몽지로서 문화사업적 관념, 독립운동의 역할에서 사업판매적 역할 — 그리고는 상업주의 등의 시대적인 경과를 치러왔고 지금은 어느 新聞이나 中央과 地方을 막론하고 모든 新聞들은 적자를 면하는 상업주의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상에 말한 모든 역할들은 다 불식한 것은 아니지만 돈이 남아서 문화사업이나 하는 식의 개념으로 新聞하는 사람은 썩 줄어들었습니다. 本人같이 돈 없이 뛰는 類型은 어찌해서라도 기업생존의 요건들을 갖추어서 收支에 입각한 기업체가 되지않으면 곤란합니다. 企業의 原理는 「適定한 投資로 많은 利를 내는 것」입니다. 이런 利益은 첫째로 모든 商品의 原理가 적용되듯이 좋은 내용의 新聞이 아니면 많은 讀者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分野가 내용을 다루는 것이기에 編輯의 責任은 企業的인 生存에 제일 큰 영향이 갑니다. 좋은 내용의 新聞이라는 판정은 제작자가 하는 것이 아니며 읽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독자의 趣向의 平均値에서 製作되고 거기서 평가를 받는 것이 商品으로서의 신문가치입니다.

發行人은 그 獨力으로 이 高度의 가치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전체 경영체의 合力없이 이 가치기준의 기업적 평가는 얻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新聞은 그 다양성·뉴스의 풍부성·고도의 品位— 그래서 必讀習性的 扶植 등으로 企業成立의 要件을 만들어 나갑니다. 매우 어려운 事業입니다. 世界의 모든 新聞들의 보편적인 苦惱는 뉴스의 劃一性에서 脫皮해서 무엇인가 出衆한 點을 보이려는 努力들입니다.

新聞의 劃一性에서의 탈피란 지금 서울이나 地方에서도 急進的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의 成敗가 하루 이틀에 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경영자는 이것에 대한 전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경영의 여건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느끼는 것은 경영은 新聞이 필요로 하는 막대한 金融上의 문제가 있습니다. 新聞의 資本은 언제나 축적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金融을 잘해서 움직여 나간다는 힘은 바로 요사이 경영자의 고뇌의 重要한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新聞의 正常化된 健全한 經營의 基礎에서 많은 從事員의 生活水準을 向上시키고 또 그 影響力을 늘려서 우리가 領域하는 이 新聞의 着實한 發展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점에 있어서 新聞의 投資는 慎重히 檢討되고 또 그것이 效率이 높아져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이 좋은 新聞을 만든다는 것은 제일 큰 武器이지만 新聞은 또한 그와 못지않게 이런 客觀的인 輿件 등이 얼마만큼 소중한다는 것을 또한 認識해야 할 것입니다.

요사이 言論界에서는 每年 몇 10%씩의 말하자면 給料引上이 단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本人이 또한 알기에는 이런 輿件으로 成長하는 新聞은 거의 없습니다.

말하자면 30%나 40%의 給料引上이 요 몇해동안 우리 言論界에서 일어난 사실이 있습니다. 이만큼 新聞이 發展되었느냐 하면 그런 新聞은 하나도 없습니다. 經營者는 바로 이런 對外的인 人件費의 상승등에 있어서도 이것을 무엇으로 감당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큰 問題가 아닐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物價의 상승과 더불어 製作코스트, 特別히 新聞 용지대의 昂등이 있습니다.

이런 가격의 昂등 또한 제반 經常費의 상승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이는 事實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의 基礎에서 新聞이 연간 그 上昇率을 인건비면에서나 모든 經費의 支出面에서 무엇으로 그것을 감당하느냐 하는 問題가 現新聞業界의 重要한 課題입니다.

經營上의 많은 이제까지의 經驗들은 인건비가 전체 收入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될 때 그 기업은 그 이상의 收入增加가 없는한 賃金の 上昇率은 그 선에서 일단 정지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不可避하게 緊縮策을 써야하며 減員도 必要하게 됩니다. 以上은 大體로 20萬部 內외의 新聞의 경우에 해당되며 적어도 그런 經驗上 公式은 30萬部臺의 新聞에도 적용된다고 믿어집니다.

本人은 여러분에게 매우 심각한 經營者의 當面 問題들을 다루었습니다. 이런 內

容의 理解는 新聞에 종사하는 人士들은 다같이 알아야하며 新聞社는 經營狀態를 대 衆 그 종업원과 간부들이 알도록 브리핑해주는 것이 옳은 방침입니다.

이제 本人은 우리 다같이 한술의 밥을 먹으며 大小간에 新聞全體의 運營에 責任 을 나눠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新聞의 方向蛇를 옳게 잡아 나가는데 있어서 必要한 일들을 말하고자 합니다. 흔히 요사이같이 新聞 만들고 팔기가 어려운 때는 別로 누 구나 停滯感이 앞서서 妙案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묘안은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다같이 한 業界가 團結해서 이 難關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역할 을 編協이나 新聞協會가 다루어 주어야 합니다.

過去에 新聞業界는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때 모두 團結해서 잘 이겨 나갔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不可하리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近者에 言論이 주로 여러분 編輯人들이 本人이 처음 序頭에서 이 點에 直接·間 接으로 言及한 바와 같이 여러분이 自由言論을 구사하여 正論을 펴고 비판력을 높이 는데 多寡間에 政治的 고려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點에 대하여도 言論界 안에 是非가 없지 않으며 또한 이런 政治上의 問題때문에 言論의 自由에 위기가 온다는 이 이야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特別히 編協會員 가운데는 이런 경향에 대하여 왜 發行人들 이 뗏뗏이 外部의 압력을 막아 주지 않느냐고 하는 批評어린 압력을 發行人쪽 에 加하 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點에 있어서 新聞의 經營體가 정부에 대하여 큰소리 못한다는 理由로는 첫째 政府의 特惠를 받고 있거나 또는 執權黨이나 行政府에 대하여 金融上의 편의를 받고 廣告등 新聞의 主要收入源이 政府關聯의 源泉과 긴밀하다는 理由때문에 어떤 政治적 이슈가 대두되었을 때 新聞이 政府에 대하여 大膽한 立場을 세울수가 없다는 事實에 서 오는 것이 아니냐고 編輯者들은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點에 대한 製作者들의 소위 외부압력이란데 대한 민감한 심리는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點 에 대해 首肯이 갈만한 解答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言論에 모든 自由로운 의사나 現 實은 아직도 많은 거리가 있다는 事實입니다.

그러나 年間 10億內外나 그 이상의 收入과 支出을 영위하는 단위 新聞을 한 企業

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시장이 廣大하지 않은 마당에서 新聞이란 一種의 정치적 영향력을 늘 發散시키는 性格을 가지면서 一面으로는 그것이 企業的이며 商業을 하는 銀行과 거래를 안할수 없으며 또한 광범한 全國領域에서 大小間의 金額일 지라도 廣告的인 聯關性을 안지닐수가 없기 때문에 新聞은 결코 特定人만을 相對로 장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商業이나 金融上의 關聯으로 인해서 그런 關聯者들로부터의 부탁이 있는 것도 事實이나 그런 부탁에 대해서 關聯企業이 무관심하거나 無誠意해질수도 없는 것이 實情입니다. 즉 광고주로서 正當한 담보와 이자를 주는 金融機關일지라도 비중 높은 광고주임에는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一聯의 廣告主로부터의 압력이라는 것이 직접으로나 間接으로나 廣告主들을 컨트롤하는 총괄된 힘이 신문의 제작에 왕왕 어떤 政治的인 이슈와 더불어서 그에 대한 부탁을 해온다는 事實은 우리나라에도 實在하며 또한 本人은 그런 작용이 다른 나라에도 있는가를 알아 보았습니다. 本人은 大小間의 다른 나라에도 이와같은 新聞에 대한 外部의 부탁들이 政治的인 줄을 타고 간여되고 있다는 事實을 實證的으로 아는 것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탁이나 壓力이 없는 나라가 이 地球上에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嚴密히 말해서 이 지구상에는 言論의 自由란 最上의 궁극적인 낙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本人은 그렇다고 이 點에 대해 그냥 肯定的으로만 여러분들에게 체념하라고 이야기 해주고 지나갈수는 없습니다. 이 點에서 本人은 왜 編輯權의 독립이 또한 그런 오소리티를 가진 여러분이 經營主의 입장을 代身해서 과감히 그것을 못막아주느냐 하는데 대해 本人이 알기에는 本人은 發行人으로서 直接的으로 이런 부탁을 받아본적이 흔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경우 政權이나 外部의 부탁은 發行人을 통하지 않고 편집부의 데스크를 통해 處理되고 議論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點을 두고 經營者에게 不平을 提起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탁은 外部에서 와서 新聞製作上의 關聯的인 人士와 處理되고 議論되어 넘어가면서 그런 然後에 不平을 唯獨 發行人에게만 돌린다는 事實은 어찌된 理由입니까. 本人은 여러분에게 이 點에 대한 解答을 求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本人은 여러분께 이런 問題

는 여러분이 對內 對外的으로 處理할 權限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大砲를 서로 쏘고 있는 戰爭國은 아닐지라도 언제라도 砲門만 열면 싸움터가 될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보더라도 平和國家라기 보다는 準戰時體制下에 있는 緊張國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특수환경에서는 言論의 使命을 감당하기도 어렵지만 이런 나라 全體의 情況을 나 모른다는 式으로, 言論의 先天的 自由權에만 沒頭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심분 양해하고 살아가는 중입니다. 이런 입장을 言論側은 나라를 統治하는 정권이 나 집권당에 대해 많은 理解를 가지고 있는데 反하여 집권당이나 政府가 이런 言論의 고충을 얼마만큼 알아주고 있는가하는 것도 問題가 되지만 言論은 그 點에 있어서 많이 協議的이며 나라의 利益이라는 點을 한가지 記事를 다루면서도 우리나라같이 심분 참작하는 言論도 世界에는 드뭅니다.

問題는 한 國家의 國基가 튼튼하다는 것은 바로 그 국가의 力量이 얼마나 바람직하게 심어 지느냐에 표준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國憲으로 禁止한 共產主義에 대한 이데올로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넓은 그 方面의 정보와 직접 戰爭을 통한 經驗을 통해서 共產主義가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國民은 個個人이 그 點에 대한 分別力이 強합니다.

바로 이런 經驗과 그에 대한 깊은 眞否를 알만한 知識的 根據가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共產主義를 內容의으로나 心理的으로 많이 念慮하게 될것입니다. 우리가 社會 內部에서 共產主義를 과히 겁내지 않고 外部에서 들어오는 共產主義의 挑發을 念慮하는 것은 內部的으로 우리는 그 點에 대한 分別力이 있는 情報를 所有하고 있다는 證據입니다.

言論은 또한 未來에 대한 觀測과 豫見力을 讀者를 통해 그 國民에게 줄 影響의 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매우 重要합니다.

우리의 成長과 우리의 缺陷과 우리의 앞날에 올 多幸스러운 일과 不幸스럽게 보이는 일들을 우리가 觀測해 주는 것도 言論이 많은 論文을 報道함으로써 그런 役割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國民들의 思考力을 높여준다는 것도 높은 知識的인 國民에

의 貢獻입니다.

社會혼란에서 오는 가치체제의 영향으로 言論이 이만큼 타격이 왔는데 社會一般 모든 사람에도 어찌 영향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혼란의 要素가 言論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혼란의 요소에 果敢한 설득과 理解를 가지게 함으로써 社會의 혼란을 도덕적으로 막도록 하는 것이 言論에 맡겨진 사명이라고 합니다. 本人은 言論의 사명을 이런 國家的인 차원에서 다루어서 여러분이 그 責任을 지고 나갈것이라는데 과장된 이야기를 하는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是是非非는 바로 이런데 적용시켜야 하며 또한 이런 是是非非가 확립될수록 權力者든 無權力者든 社會의 法の 테두리 안에서 모두가 함께 원만하게 살도록 하는것입니다. 흔히 社會는 弱者에 대해서 동정하는 것이 理由있는 일이겠으나 질서문란이나 폭력에 대해서 비판하는 만큼 無氣力해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가비판이 마땅합니다.

本人은 꾸준하고 신조있게 社會의 정의에 대해 늘 옳은 이야기를 하는 新聞은 상품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우리나라 독자를 늘 잃지않고 유대감을 가지고 끌고 나가는데 그런 論調는 필수 불가결하다고 느낍니다. 本人은 특히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會社라는 직장에 고용된 사람이라기보다 자기가 맡은 책임영역에서 經營者요, 자기의 권한에 속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知力을 가지고 떳떳한 이야기를 전개시켜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이 권력앞에 비굴해질 것도 없고 자고로 권력은 비겁한자에게 동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력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떳떳한 이야기를 전개시켜서 正論直筆하는 사람에게 권력자가 존경을 받도록 그런 풍토를 확립시켜나가야 우리나라는 모든 면에서 발전됩니다.